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4월 5일(주일) 제1289호



온라인 예배 안내

4월 19일(주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오전11:30, 주일오후 2:00, 4:0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www.youtube.com/user/OnnuriEM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rUjyxgLiZPdsu84aFkfpBw

-중국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z9aiOc3lmRdKi0rt600DOQ

-스페인어예배
www.youtube.com/user/neira7003

-프랑스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ZOzpnYpylq_wQsw4gSAnWg 오후 2:00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의 승리'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9시 온라인 실시
차세대, 부활절 선물패키지 배부 및 굿월스토어 캠페인

내일(6일)부터 '2020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4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후 9시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이번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십자가의 승리'를 주제로 복음서 본문을 이용해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2020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 중보기도, 말씀선포,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요일별 설교 제목은 4월 6일(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 7일(화)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이 되다', 8일(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다', 9일(목) '악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지시다', 10일(금) '온 땅에 아들이 되셨다'이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 끼 이상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을 헌금한다. 금식헌금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공감소비운동'에 사용된다.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병행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아주 뜻 깊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 및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를 지난 3일부터 오늘(5일)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국내 온누리교회 차세대 가정에 배부한다.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는 부활절 각티슈(가정예배용),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 계란 모양의 미니화분, 간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12일 차량으로 교회에 방문(drive-through: 드라이브 스루)해서 수

령하면 된다.

차세대사역본부는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 및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 배부와 함께 굿월스토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굿월스토어 캠페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돕는 일이다.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 및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령하러 교회에 올 때 집에 있는 기증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기증하면 된다.

차세대 문의: 02-570-7436

굿월스토어 문의: 1670-912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 12일부터 드라이브인 워십

양재 화물터미널 주차장 ... 홈페이지 등록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4월 12일(부활주일)부터 매주 일 '드라이브인(drive-in) 워십' 예배를 드린다. 시간은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4시, 4부 오후 6시이고, 장소는 양재 화물터미널 주차장(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 코스트코 맞은편)이다.

다.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에 참석하려면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생성된 바코드를 휴대폰에 저장해 예배 당일 주차장 출입 전에 제시하면 된다. 성도들은 자동차 창문을 열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

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면 안내위원들이 체온체크를 한다. 성도들 간 접촉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바로 출차해야 한다.

드라이브인 워십은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를 간접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안이다.

문의: 02-3215-3313, 02-570-744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느헤미야 8:9~12

“참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주의 날의 의미에
합당하게 예배와 안식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거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없었다면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날’의 세 가지 의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를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첫째,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 모인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주제요, 주의 날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세계는 안식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새 창조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창조의 일원입니다. 새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날은 궁극적인 안식일인 영원한 쉼에 대한 소망의 날입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계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계 1:10).

주의 날 사도 요한은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의 날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 땅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며, 동시에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원한 쉼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유대인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듯이 율법적으로 지켰다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했던 예수님과 관계 속에 누리는 주의 날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중심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멈춤으로써 참된 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의 의미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의 날’의 역사와 신학적 근거

온누리교회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좌석 수를 1/4~1/5 수준으로 줄입니다. 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와 어디 앉았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좌석 수가 매우 적은 수로 제한되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 어느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차세대를 동반한 성도들, 오후 6시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확산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 전통적인 주일성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이라는 필요로 요일을 바꾸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이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의 역사를 살펴보고, 신학적인 근거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인 ‘주의 날’은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저녁식사부터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에서 일몰까지입니다. 안식일의 정확한 기간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가 많아지면서 일요일 이른 새벽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새벽에 모이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휴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칙령 때부터 지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집이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예배가 정착된 것은 한참 후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회중이 모이지 못한 것을 “예배가 무너졌다”, “주의 날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의 날을 안식일과 관련짓지 않았습니 다.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칙령부터 초대교회 말기까지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때부터 일요일 오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휴일이 생겼기 때

문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요일 오전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인 것입니다. 또 이때 예배용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식이 정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용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의 날 활동금지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황제들이 주의 날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금지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주의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과 비슷해졌습니다. 주의 날은 곧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서 중세에 생겨난 많은 성인의 날들과 특별한 절기들을 폐지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 준수가 주의 날인 첫째 날 준수로 바뀌었다는 데 확실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으로서의 지속이지만, 의식법으로서의 폐지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견해를 지지하며 이것을 근거로 토요일예배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장 칼뱅은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므로 특정한 날이나 7이라는 숫자조차도 구속력이 없다”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둘째, “교회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을 따로 떼어 놓았던 미신을 타파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날에 고착되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 아닌 또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히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칼뱅은 특별한 날은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집회를 위해 어느 한 날이 정해져 필요에 따라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용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요일인가가 아니라 주의 날의 의미에 합당하게 예배와 안식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마다 모여 말씀을 들으며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새 창조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육신의 일로부터 쉬는 날이 참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니 반복되는 일상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있다. 6살, 4살, 7개월 된 세 아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하고, 24시간 집 안에서만 보내야 하는 전쟁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바이러스보다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잠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틈도 허락되지 않았기에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가정예배를 회복시켜주셨다. 육아와 가정 대소사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던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생각은 내 편견에 불과했다. 지난주에 셋째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걱정을 했더니 첫째 아들 지혁이가 열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동생 열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시간 여 만에 열이 뚝 떨어져서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기도응답의 체함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순간



김수정 성도 가정은 QT 책 <예수님이랑 나랑>을 활용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었다.

우리의 가정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하 아빠가)를 통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바꿔주셨다. 3주 동안 아빠가 촬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미루고만 있었던 가정예배가 짧은 시간에 잘 정착될 수 있어

서 너무 감사했다. 이제는 기도회나 부흥회 영상을 틀어놓고 "주여!"를 외치며 소리 내 기도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절로 은혜가 더해진다.

특히 육아에 지쳐있던 내게는 평상시보다 더욱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셋째 출산 후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다보니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곤 했다. 하지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묻고 응답받는 귀한 훈련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 지금같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 영아3부 교사 공동체에서 더욱 뜨거운 나눔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메신저에 '성경통독방'과 '30분 이상 기도방'을 만들어 서로 독려하며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새벽수유를 한다고 그동안 미루었던 새벽큐티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 엄마인 나로 인해 아이들의 하루가 좌우됨을 느끼면서 엄마의 아침 첫 시간 큐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아침을 깨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 있으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처음에는 우려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예배 안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김수정 성도(아빠가패밀리6기)

대학청년부 SNS공동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2월 23일 이후 예배가 잠정 중단되었다. 과거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돌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 상황에도 예배는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예배 잠정 중단 소식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동체의 모든 순장모임, 중보기도모임, 홀리스타 예배도 취소되는 것을 보며 영적 비상사태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견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앞으로 있을 온라인 예배와 모임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과연 개인의 공간에서 끝까지 집중하며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재빨리 나의 생각을 접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중보기도모임은 첫 2주 동안은 카카오톡(SNS) 채팅방에서 했다. 생각과 달리 오프라인 모임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중보기도를 통해 동일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육성이 아



김기범 형제는 매주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닌 스마트폰 스크린 안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만 온라인 공간으로 연결된 모든 지체들의 처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다시

금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찬양시간이 적응하기 어려웠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집에서 드릴 때는 이웃들을 의식하며 조용히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웃들을 의식하다보니 내 마음

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외부 공간을 빌려서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추가로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매주 내 안의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녀의 특권이자 기쁨임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만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조명해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삶의 예배, 말씀의 성취 등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오프라인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주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한다.

/ 김기범 형제(SNS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 '마리아행진 123' 기도

코로나19로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고 황당한 마음 가운데 서야 했다. 교회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집 앞의 교회는 빨간 줄로 막혀 들어갈 수 없었고, 말할 수 있는 입은 있지만 다물어진 채 교회 주변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기도를 한다고는 했으나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남편이 병원으로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 나는 처음에는 남편의 안전을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두렵고 걱정이 됐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라이브 예배', '마리아행진 123' 기도 등 각 공동체에 연결된 끈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향한 눈을 다시 돌릴 수 있었다. 기도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과 기도의 방향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교회 문이 닫혀 우왕좌왕하고 있는 해외와 타 교회를 섬기는 분, 상황만 바라보며 비판과 걱정에 쌓여있는 분, 이제 믿음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기도영상과 공동체 성경읽기를 공유하고 말씀을 나눴다.



정유정 성도 가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코로나19가 시작되어 건잠을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교회 문이 닫힐 때 너무

나 애통했던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며 처한 상황에 금방 적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목사님들의 기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갈망과 목마름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발가벗겨지

는 것 같았다. 가장 잘 섬겨야 하는 가정을 잘 섬기지 못했고, 기도를 한다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내 배만 불리기에 바쁜 나의 죄들이 떠올랐다. 해야 할 기도는 많은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형식적으로라도 따라 읽으며 기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마리아행진 123' 기도예배에 차곡차곡 쌓은 기도가 이제는 '9시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계획의 상황에서 조금이고 불안한 마음, 이기적인 생각, 세상만 바라보는 눈, 비판과 정죄의 입이 점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두렵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루하루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세상이 흔들린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 정유정 성도(수요오전여성예배 챔버팀)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2월 말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청년부 홀리스타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 주일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다. 새벽공기를 마시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던 시간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탁교제를 나누던 장면들이 스쳐지나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홀리스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큐티책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홀리스타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자유롭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조금은 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 함께 예배했던 홀리스타 교역자님들과 팀원들, 예배자들이 많이 그리고 보고싶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기에 순장님의 추천으로 'War Room'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기도하는 분을 만

하나님 앞에 더욱 자유롭게 솔직하게



이은애 자매는 매일 새벽 홀리스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다.

나게 되면서 주인공이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이 담긴 영화다. 영화제목인 'War Room'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의미했다. 주인공이 공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제목을 붙여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인상 깊어서 나도 큰 책상 하나를 'War Room'으로 정하고 그곳에 성경책과 기도노트를 놓

아두고 그 곳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실 온라인으로 홀리스타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온라인 예배의 장소인 것 같다. 몸이 지치는 날은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이 컸다. 하루는 침대 위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잠들어 있는 나

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잤지만 그날을 더 피곤한 상태로 보내게 되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온라인 홀리스타 새벽예배 때 받는 은혜가 크다보니 생각나는 분들에게 홀리스타 실시간 영상 링크를 새벽마다 보내드렸는데 한 분이 큰 감사를 표현해주셨다. 새벽예배를 작성한지 몇 주 안 된 타 교회 교인이셨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새벽예배가 중단이 되어 방황하던 상황에서 온라인 홀리스타 실시간 영상으로 인해 다시 새벽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새벽예배가 중단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홀리스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더불어 예배의 형태와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나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 이은애 자매(서초홀리스타)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의 수도 동경에도 그 영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아베 수상이 향후 일본에서의 감염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이벤트, 스포츠 관람 등에 대해 자제 요청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는 정부의 권고에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더해 일정 기간 예배당에서의 공예배와 주중모임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불안으로부터 지키는 것. 둘째, 성도 800명 이상의 큰 교회로서 감염확산을 예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셋째, 교회가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경 온누리교회는 3월 1일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경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의 예배당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벽예배를 비롯한 주중예배와 주일예배 모두 영상예배로 대체해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재개 시기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4월 초중순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나 변화 추이, 일본 정부기관의 권고사항, 한국 온누리교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방역 및 소독, 청소를 위해 모였다.

회의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역자와 비전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경 온누리교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단 감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을 멈추는 것에서 벗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

다. 그 중 하나가 중국 우한시의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헌금을 보냈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교회인 오후나토교회(大船渡教會)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 약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교회는 매일 새벽예배, 목요여성예배, 주일 성인예배 및 차세대 예배(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리더십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각 사역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보다 좋은 팀워크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회 내 안전 및 위생 상황을 고려한 대책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급피난을 위한 계단난간 설치 공사, 예배당과 3층 어린이방의 환기 시스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가정심방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케어에 소홀하진 않습니다. 비록 가정심방은 없지만 담당교역자들이 전화심방을 통해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 교역자들이 순장 및 리더십들과 매주 영상으로 만나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을 공유합니다. 첫째, 동경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어 자유로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 온누리교회와 해외비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동경 온누리교회)

오uckland 온누리교회

가정중심 신앙생활

안녕하십니까? 오uckland 온누리교회 유현목 목사입니다.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현재 뉴질랜드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3월 25일 저녁 11시 59분 코로나19 비상수준을 최고단계인 레벨4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식료품점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와 회사, 상점이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셧다운(임시휴업) 되었고, 함께 사는 가족 이외의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예배 유튜브 촬영을 위해 그나마 교회에서 모이던 소규모 팀들도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확진자는 283명(3월 26일)입니다. 지역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대규모 감염자가 나올 경우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uckland 온누리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 애잔과 순모임, 성찬을 중단했고, 지난 3월 22일에는 차세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주중예배와 성경공부모임을 중단했고, 지난 3월 29일 주일부터 예배 역시



오uckland 온누리교회 어린이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CGNTV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현재 거리에는 차량이 거의 없고 가끔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 적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uckland 온누리교회는 다음의 네 가지 지

침을 따라 가정중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9시 30분 서울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생방송을 보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아침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예배가 회복됐다는 간증이 많이 들려오

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가정예배 매뉴얼(찬양, 기도, 설교, 주기도문, 나눔)을 드리고 창조과학, 이단 분별, 신앙 간증, 사도행전적 교회 등의 영상설교를 듣습니다. 셋째, 주일예배는 CGNTV로 서울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넷째, 매일 성경통독 90일과 큐티 묵상을 각 순별 단체채팅방에 올리고 나눔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7년 넘게 성경통독을 하면서 SNS를 통해 묵상나눔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순장과 교사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uckland 온누리교회에서는 매주 신앙 간증(영상, 소감문 등)을 세대별로 5명씩 선정해서 교역자들이 생활필수품을 문 앞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uckland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생명 나무로 자라게 되기를, 뉴질랜드와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 유현목 목사(오uckland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온누리교회

사회적 책임과 영적인 책임

한국의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재욱 목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3월 초까지 16명에 머물던 확진자 수가 지난 2주 동안 14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부 시책과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시시각각 변경되면서 한국 교민들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운행되던 하늘길이 굳게 닫히면서 호치민 한인 사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 초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고, 3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을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하는 베트남 정부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격리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14일 격리 조치가 지난 3월 21일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자국민, 외국인)로 확대되었고, 24일부터는 30인 이상 식당 및 서비스업의 영업을 중지시켰으며, 25일부터는 종교활동을 멈추라는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와 교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사회



베트남 온누리교회 이상민 집사가 자녀들과 함께 차세대에서 하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고 있다.

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기도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베트남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는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예배를 멈추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떠올랐을 정도로 예배를 멈춰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예배가 멈춰진 기간 동안 묵회자로서 육신은 좀 편해진 듯 했지만 마음은 왜 그토록 힘든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예

배를 잠시 드릴 수 없을 뿐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며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많은 우려 속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예배의 기쁨이 무엇이고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는 정부의 권고와 여러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지난 3월 22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영상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인터넷 상황 때문에 라이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전 8시에 예배를 녹화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유튜브 예배였지만 이런 도구를 통해서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최고 중요환 2주를 보냅니다. 베트남의 의료적 현실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서는 안 되고, 한인 사회와 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베트남 온누리교회와 베트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든 베트남 국민들과 외국인 체류자들이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하루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경공업 50%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 빨리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베트남의 공장과 경제가 회복되고, 한인 사회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베트남 땅에 사회적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재욱 목사(베트남 온누리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멈췄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반전”

토요일에 행정조치가 내려져 주일예배 금지가 선언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조치로 다급히 교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일예배가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날 이른 저녁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땅!(엄마) 라는 뜻이지만 교회에서는 영적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 내일 예배가 왜 없어요?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요! 예배를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수요일에 불어공부도 없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모리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나이는 19세이고 미장일을 합니다. 모리바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통화를 끝냈는데도 컷가에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요!”
지난 2월 세례 받은 모리바의 뜨끈한 믿음에서 나온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낯설지 않

은 믿음의 고백 같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모리바의 믿음이 나보다 좋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사실입니다. 행정 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심상치 않은 흐름에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사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 마트에 물건을 사려면 줄을 서야 하고, 간혹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가면 벌금 댈지도 다닌다고 차별을 받기도 하니 말입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이동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집에 있을 때면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합니다. 아! 어쩌면 주님이 이때의 멈춤을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멈춰야만 드러날 주님의 일이 있으실까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라고 생각

했습니다. 정작 내가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놓치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 착각하고 만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지 아니이다”(스 9:6).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열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트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스 9:8).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있는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정수리에 넘쳤고 하늘에 이르렀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큰아이가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후 흐지

부지됐었던 가정예배를 다시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간 안 했던 고백을 시작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멈춤이 비로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멈춰야 진짜 가야 할 것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찾아가니 저절로 온 몸이 조아려 집니다. 제게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았을 때 보다 멈췄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로 만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와 같은, 아니 더 큰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곧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날이 곧 오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 김빌립, 임보희 선교사(아프리카 F국)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 시리즈

재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사랑과 정의 실천을 중심으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과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총체적 재난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윤리적 관점 혹은 기준을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윤리적 기준을 꼽는다면 두말할 것이 없이 ‘사랑’과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1서의 증언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사랑이 목적 자체이시기에,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시지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을 맹목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악으로 경도된 삶을 향해 더 전진해 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타자를 수단화하거나 착취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 대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정의의 근본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요, 정의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도 사랑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규율하고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과 정의이어야 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고 행동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사람(혹은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 삶이든 공동체적 삶이든, 개별적 사안이든 총체적 사안이든, 개인과 개별 공동체에 연관된 문제이든 세계적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든,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기독교들은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고 체화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동등배려’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사랑하자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또 그 재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 재난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동기로 단단히 무장하고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더욱 뚜렷하게 가져야 할 것입



**“나만 재난의 위기를 벗어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공적으로 참여·협력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소망을
현실화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명예교수 아웃카(Gene Outka)는 그의 저서 『아가페』에서 아가페를 ‘동등배려’(equal regard)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을 경청하고, 기독교 역사의 깊고 넓은 사랑의 논의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적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동등’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아웃카가 ‘동등’과 종종 바꾸어 쓰는 용어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용어는 ‘자격심사를 하지 않는’(unqualified)입니다. 사랑은 자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자격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덜 되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격의 유무, 자격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를 뛰어넘어 사랑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인간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격심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당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가치도 없는데 모든 인간을 자격심사를 뛰어넘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아웃카의 개념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irreducibly valuable’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말로 옮겼을 때의 중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도무지 축소할 수 없을 만큼 꼭 찬 가치의 존재로 가치인식하고 또 그 어떤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으로 환원하거나 환치할 수 없는 독보적 가치의 존재로 가치인식’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에 속한 이들만 이러한 가치인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이러한 가치인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치인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웃카는 그 근거는 신학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 가치인식하고(irreducibly valuable)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등’에 담긴 핵심적인 규범적인 의미는 보편성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격심사 하지 않고, 도무지 축소할 수 없는 꼭 찬 가치의 존재로 또 다른 어떤 존재에도 환원할 수 없는 독보적 가치의 존재로 가치인식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입니다.

다음으로 ‘배려’입니다. 이 개념은 사랑의 주체의 헌신과 연관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동등’하게 사랑하되, 대가와 반응에 상관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직 적대적 반응뿐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가나 반응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돌려주는 이해타산적(利害打算的) 행위라면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배려’는 심리적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념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대상의 필요, 소원, 행복(복지), 최선 등을 면밀히 살피고 파악했으면 실현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내포한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배려’에 담긴 핵심적인 규범적 의미를 아웃카는 일방향성(unilateral feature)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와 반응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의 궁극적 결실은 친밀한 사귄 혹은 공동체형성이라는 점을 아웃카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두를 품되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

재난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난 속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가 동료 인간이기에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 사랑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성’은 차별이나 특별한 대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에 우선적 고려와 행위가 요구된다면 그러한 우선적 사랑 실천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면 구약의 ‘고아

와 과부와 나그네’와 신약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통칭합니다. 특별히 힘이 없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는 물론이고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갖지 못한 이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변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들만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특별히 더 강한 정도로 사랑하시겠다는 의도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선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점을 밝히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초대하기 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언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성경적으로 찾는다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헐벗고 주린 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랑의 절박성을 우리도 공감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며, 공감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러한 절박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섬기라는 강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믿는 우리는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사랑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기에, 먼저 그리고 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공급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찌 보면 자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감염된 분들, 감염된 분들 중 기저질환이나 연령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 감염의 가능성이 높이에 상되는 분들, 감염의 위험에 폭넓게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들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명하게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먼저 찾아가고 배려하고 사랑하여 감염으로부터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들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여건이나 역량이 부족한 이들을 도와 최대한 감염 위험을 낮추는 활동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난은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기에 재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보편적 배려와 구체적 실천은 동시에 추구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이 ‘보편적 배려와 구체적 실천’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실천, 잘못 바로잡으면서 공공선 지향하자!

보편적 사랑을 추구하되 우선적 사랑의 대상에 대한 특수한 고려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사랑은 정의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정의, 특히 분배 정의를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의 실천에 있어 ‘우선성’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책임과 공공선의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참된 악은 이성적 존재 곧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장이 이어집니다. 참된 악을 찾고 또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존재는 자유의지를 보유하고,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혹은 신학적으로) 인간이 선택하고 행한 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인간이 자발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유의지가 아니라, 다시 말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적 결정이 아닌 외부의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 그러한 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한 비자발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부터, 특히 인간의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재난을 촉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뿌리를 둔 정의의 기본 이해 곧 마땅한 몫(보상과 책임)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정의의 이해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을 지

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기본적 실현이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정의의 기본적 관점 뿐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된 확장된 의미에서의 정의의 관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퀴나스는 마땅한 몫을 주고받는 것으로서의 정의를 특수 정의(particular justice)로 규정하면서, 이 정의와는 다른 혹은 이 정의를 넘어서는 정의로서 일반 정의(general justice)를 제시합니다.

일반 정의의 중요한 다른 이름은 ‘사회 정의’입니다. 기독교윤리학자인 홀렌바흐(David Hollenbach)는 아퀴나스의 이 일반 정의의 핵심적 의미를 포착하여 ‘공헌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라고 하였습니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사회 정의는 그야말로 사회에 공헌하는 정의로운 삶과 실천을 규범적으로 지시합니다.

왜 사회에 공헌하는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한 생존의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시민이나 소수의 누군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 곧 공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 곧 양식,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요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 혹은 공동체에 속한 동료 구성원 모두를 생각하는 사랑의 동기를 품고 타자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줄여 말하면 ‘공공선을 위한 이타적 헌신’입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적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자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쏟아 부을 수 있는 참된 신자들처럼 공공선 증진에 유익한 사회구성원들도 없기에 공적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그렇게 살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기본적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들, 공공선을 위한 헌신으로서의 사회 정의(혹은 공헌적 정의) 실현을 위한 헌신이 재난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

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재난은 재난을 겪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재난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면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특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재난의 원인을 찾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교정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재난으로 고통 하는 공동체 전체의 선(善) 혹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선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선을 위해 책임 소재를 찾고, 밝히고, 교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생성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여러 생명체들에게 감염되게 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포함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난의 원인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볼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적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다른 형태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막아 거시적 장기적 차원에서의 공공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가페의 ‘끌어올림’을 사모하며...

니버(Reinhold Niebuhr)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논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아가페의 ‘끌어올림’(pull of agape)이 절실함을 역설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전하는 사회 윤리적 조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들립니다.

신자들이 사회 속에서 아가페로 살면, 타자와 공동체와 공공선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줄 줄 아는 신자들이 그 사랑으로 살면, 그 사회의 정의의 수준이 한껏 고양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담겨 있는 권면이기도 하지요. 보상적 정의에서 공헌적 정의로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경청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재난의 위기를 벗어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공적으로 참여·협력하고 봉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소망을 현실화하는 복된 세상을 이루는 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창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재난을 이기는 영성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기도’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1913~1960)가 타계한 지 60주년이 됩니다. 카뮈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지만 코로나 19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의 소설인 『페스트』(1947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소설은 페스트(흑사병)라는 재앙이 덮쳐 폐쇄되어 고립된 도시 ‘오랑’을 무대로 재난과 그 속에 존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카뮈는 페스트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진 채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보건대를 구성하여 페스트와 맞서 싸우며 상황을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연대 의식이 재난을 뛰어넘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피해갈 길 없이 죽음을 맞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리유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통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지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해도 인간은 결국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더욱 깊이 인정하게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닥치는 재난은 크게 질병, 전쟁, 테러,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이 있습니다. 재난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일간신문의 3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코로나로 일상의 반 이상이 멈췄다고 토로하며, 이로 인해 분노감이 3배 증가했다고 호소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은 분노 이외에도 혐오, 이기심, 타인에 대해 부정해지는 현상을 쉽게 동반합니다.

카뮈가 말하듯 ‘페스트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의 능력, 심지어 우정을 나눌 힘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해지고,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의 강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가치가 경시되는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확대된 자기중심성으로 교회 중심적 사고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하는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타자를 위한 교회’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편의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선택과 결정에 민감해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는 두려움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어둠의 시간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은 더욱 빛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가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자신을 온전히 하

다고 합니다. 251년에도 홍역으로 생각되는 전염병이 동일한 파괴력을 지니고 다시 한번 제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은 세속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견지할 태도에 대해 선포하였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은 251년 역병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소명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이방 종교나 그리스 철학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었고, 기독교 신학은 세상의 학문이 설명하지 못하는 종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을 보면 기독교는 초기부터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으로 공동체 결속과 사회봉사에 헌신했고, 재앙이 닥

**“모든 특별대우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것들을 양보하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간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돌보는 사랑 못지않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독거와 금욕적 삶, 침묵과 기도생활에 헌신하는 수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희생적 삶을 살았던 영성가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몇몇 영성가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을 몰고 온 코로나19 사태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성으로 이 재난을 마주해야 하는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실천

사회학자이자 비교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기독교가 형성되고 확장되어 가던 로마 시대에도 가공할 전염병이 여러 차례 로마제국 전역을 강타했고, 전염병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는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기에는 서구 최초의 천연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돌면서 15년 동안 로마제국 인구의 1/4 또는 1/3이 사망했

을 때는 더 훌륭하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전염병 지역을 떠나지는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면서 주위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제의 손길을 펼치며 도왔기 때문에 매년 전염병이 휩쓸고 간 후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수도원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이집트에는 세 가지 형태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 ‘독수도자’ 또는 ‘은수도자’(anchorite)였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살면서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각자의 수도처에 홀로 머물면서 기도와 단순한 노동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와 기도, 애잔을 함께 하는 수도 형태였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도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영성훈련과 교육을 하는 회

수도원 혹은 공주수도원을 시작한 파코미우스에게서 발견됩니다. 292년에 이교도가 정에서 태어난 그가 기독교인이 된 계기는 군대에 징집되어 가던 중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징집이 면제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세네세트’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파코미우스는 그 마을에 정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마을에 머물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얼마 후 그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코미우스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전염병이 사라진 후 파코미우스는 마을을 떠나 본격적인 수도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수도자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그를 따르며 함께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파코미우스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323년경). 그리고 통일된 영성과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수도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여러 개의 수도원과 많은 수도사가 소속된 수도원 연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345년에 전염병이 닥쳤고, 이로 인해 많은 수도자와 함께 파코미우스도 6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파코미우스 수도원 연합의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 지도자와 수도자들이 사망했는데 모두 고열이 나면서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눈이 충혈 되고 숨이 막히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9개의 남자수도원과 2개의 여자수도원이 파코미우스 수도공동체 연합에 속해 있었는데 중심 수도원이었던 프보우 수도원에서만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파코미우스는 수도원 전체를 이끄는 수도원장이었음에도 투병 기간에 모든 특별대우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것들을 양보하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간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성으로 돌보는 사랑에 못지않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파코미우스 공동체 외에 베네딕트 수도원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같은 다른 수도원에서도 그 기본정신은 겸손에 바탕을 둔 차별 없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서로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확대의 영성을 보여준 초기 수도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계속).

/ 김경은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전문가 기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이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인가? 그런데 바이러스를 좀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질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장내 세균이 사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내 세균뿐 아니라 피부 등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평균 세포 수는 30조(兆) 개 정도이며, 우리 몸에 있는 세균 수는 39조 개 정도로 추산한다. 이렇게 많은 세균들 중에 어떤 세균들이 어떤 분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각각의 세균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들을 이용해 난치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특정 균보다는 전체 균들의 분포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세균들에 대한 연구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들은 21세기 들어서야 병원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세균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세균과 마찬가지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피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조사한 연구진에 의하면 피부에 있는 바이러스의 90%는 기존의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즉, 사람 피부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90%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처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악명 높은 바이러스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노로바이러스가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위장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음도 발견한 것이다. 타액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질서를 다시 묵상하게 된다.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감염병이 생겼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해로운 세균을 물리친다는 보고도 있고, 2020년 연구에서도 코, 입, 위장관 등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마이크로바이옴처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세균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처럼 앞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바이롬(Virom) 연구가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균과 함께 있는 바이러스는 세균을 숙주로 해서 사는 바이러스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세균파지)’라고 부르는데 장내 세균이 10조 정도인 반면 장내 박테리오파지(바이러스)는 20조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장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장세포 표면 점막에 붙어서 면역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내 세균을 억제해서 염증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세균의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바이러스 분류체계도 동식물의 분류에 사용하는 ‘종, 속, 과, 목, 강, 문, 계’ 분류체계에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볼티모어 분류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1971년 제정되었는데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있다. 바이러스 중심에 있는 유전정보는 RNA 또는 DNA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겹가닥인 것도 있고, 외가닥인 것도 있다. 또한 같은 외가닥이어도 성질이 다른 것들도 있다. 바이러스는 이 유전정보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다. 그러나 단백질 껍질 외에 지질껍질도 있는 등 바이러스 종류마다 각각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면서 그 안에 각각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따라 세부 분류를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단백질 껍질에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길게 뻗은 단백질이 있다. 이런 모양 때문에 왕관 형태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로 명명한 것이다.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질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중에 일부가 병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도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다.

첫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전체가 변화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면역기능 감소 등으로 그 전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피로할 때 입술 근처에 수포가 생기는 것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인데,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피부에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면역기능

이 떨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셋째, 원래 사람에게는 없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 병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게 많지만 박쥐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때는 SARS나 MERS, 코로나19와 같은 병을 일으킨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새로 진화되어 생긴 것이 아니며, 외부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해서 병을 일으킨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 전파속도가 빨라졌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바이러스의 변이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고 해서 구조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바이러스의 변이도 진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돌연변이 현상일 뿐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유사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모두 RNA만으로 구성된 바이러스이지만, 구조와 염기서열 모두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체계에서도 다른 ‘과(family)’에 속해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염기 수는 3만개 정도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3,588개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ARS 바이러스와 구조 및 염기 수가 비슷하며, 두 바이러스 사이의 일치도는 86%이다. 그래서 바이러스 학자들은 두 바이러스가 같은 종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비록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기생충처럼 숙주가 필요하지만, 독자적인 유전정보 체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들은 그 존재도 잘 몰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들도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위치를 이탈한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바이러스들은 세균들과 함께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역할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길 기도한다. 동시에 이런 사건을 통해 바이러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질서를 다시 묵상하게 된다. 또한 그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생겼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코로나19, 신앙과 마음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답: “첫째, 영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눔을 갖고 격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정적 전치(Displacement)를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국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치료제가 없는 단순한 감기바이러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급속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두려움과 공포에 처해 있다. 코로나19의 위력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는 당연히 되었던 현장예배가 멈추게 된 점이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현장예배를 중단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은 전염병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인

구조사를 실시한다. 그는 곧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때 하나님께서 형벌로 기근, 전쟁, 전염병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제안하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택한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와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전쟁과 기근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미워하며 인색한 손이다. 하지만 고대사회에서 전염병은 항생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질병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윗은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오늘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연히 드릴 수 있었던 현장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무엘하 24장은 전염병이 멈추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는다. 다윗의 제사는 그 다음이다.

코로나19 앞에서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평소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교회당이 아니지만 각자가 있는 골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마음과 신앙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말씀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는 매일 개인 신앙을 돕는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충실하게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믿음의 동역자들과 SNS나 전화로 나눔을 갖고 격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만 힘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 서로 힘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 들 것이다.

셋째, 부정적 전치(Displacement)를 조심해야 한다. 전치(轉置)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 화풀이하는 행동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서 화풀이”라는 우리 속담이 이를 잘 묘사한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분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넷째,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감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반드시 종식기가 온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신앙이 개발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다섯째, 가장 영적이고 심리적인 백신은 국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수칙을 잘 지킬 때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전도서 3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상담코칭학 Ph.D)

목회칼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교회 역시 6.25전쟁 이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다.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그것도 횡수가 반복될수록 불편한 마음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노리고 있듯이 교회를 향한 파가운 시선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러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취약계층의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도 중지되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행동해야 한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첫째,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의 큰 시험거리이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악인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시험에 빠진 교인과 무너진 가정,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은밀히 활동하던 그들의 실체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

둘째,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성도들은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 것이다.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영적 현상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드리는 예배와 흠어져서 홀로 드리는 예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익숙해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만큼 한국 교회도 바쁘게 돌아갔다. 안식일은 예배와 쉼이 포함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쉼은 무시되고, 예배와 사역만 강조되어 왔다.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은 계명을 범하는 큰 죄로 인식했지만, 안식하지 않음은 아예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아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교회 사역이 중단되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춤과 쉼을 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 이 기간 동안 말씀묵상을 깊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건서적을 통해서 영성을 깊게 하는 것도 좋다.

넷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거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섬겨 달라고 목적헌금을 하였다. 또한 어떤 성도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돕고 싶다고 헌금을 하였다. 뜻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수십 가정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월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십 개의 탈북자 교회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전 교회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다락방을 통해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지역 전통시장 등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으로 취약계층을 섬김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요, 소망이 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 독후감 공모전 48명 수상

온누리선교재단이 지난 3월 26일(목) 이재훈 담임목사의 신간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2회에 걸쳐 독서토론회를 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했다. 독후감 공모전에서는 총 48명(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5명)이 수상했다. 다음은 독후감 수상작 요약.

■ 대상

위대한 삶이 아닌 선한 삶으로 부름 받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쾌락을 찾아 엄청나게 돌아다녔다. 범죄만 안 했다 뿐이지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즐기고 살았다. 하지만 그 무엇을 해도 마음속의 허무함을 채울 수 없었다. 쾌락 이후 찾아오는 죄의식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 크신 사랑

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이 180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허무했던 영혼의 빈 공간이 넘치도록 채워졌다. 무엇을 하든지 힘이 났고,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했다. 내가 좇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미건조한 것들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저 모든 것이 은혜였고 기뻐다. 마음 속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바라보게 됐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자신의 유익을 내

려놓는 것이며, 오직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이웃이고, 지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시대는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곤경에 처한 나,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해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자, 따지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돕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 김대균 팀장(서빙고 보안관리팀)

■ 우수상

선한 바보

타인에게 잠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후에 감동을 자아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선한 바보’라 부르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바보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진정한 선한 바보의 삶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모멸의 시간을 견디고 고통을 감내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신 예수님의 생이 바보의 삶처럼 느껴진다. 나도 이처럼 선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

사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요원한 길이다. 어떤 이가 한 말이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승의 도(道)보다 더 닳아야 함이라고. 나 역시 죄인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과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진심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언제쯤이나 예수님과 같은 선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

/ 김용화 사원(서빙고 보안관리팀)

■ 우수상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주제를 가진 본문을 읽으며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나는 오늘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고 아껴서 저축을 하며, 재테크 정보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 좀 더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일들이 가장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목표를 위해 달려갈 뿐이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이 깨닫게 되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잊으려고만 했던 내 모습을 돌아

보게 됐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막 10:43-44).

세상은 섬김 받는 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 그 중 가장 낮은 자세로 종처럼 섬기는 자를 주목하고 높이신다. 주님께 으뜸으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 김학만 과장(양재 기관팀)

■ 장려상

고통도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고통도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적 사태로 인해 두려움, 우울감, 피로감 등을 느꼈던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인 요즘,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하지 못해 안타깝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고통 뒤에 다가올 행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고통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지나간 후에도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일, 이웃들과 즐겁게 관계 맺는 일 등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음 깊이 묵상해보며 내가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족, 동료,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면이 넓어져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남석창 팀장(서빙고 기관팀)

■ 장려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업무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과 관계를 생각해본다.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왔다.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든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제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고 싶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어 순종에 힘쓰며 나에게 듣

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존중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전부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가족과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고 싶다.

/ 박광석 대리(양재 보안관리팀)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홍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영어) 주일 16:0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둘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훈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대상: 문서사역 헌신자(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서
문의: 02-3215-3196, khj@onnuri.org

선교사 숙소 도배 봉사자 모집
내용: 파송선교사를 위한 원룸(1개) 전체 도배
모집: 경험이 있거나 섬김을 원하는 봉사자
일시: 추후 협의
문의: 010-2902-276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토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속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2일 재개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접수: 4월 20일~27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ckr 참조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11:30 / 고등부-10: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 895. 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 825. 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를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 56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북향민 주일 11:00 온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천 O32. 437. 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 47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중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 331. 8171 주일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를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편젤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	---	--	--	--	--	--	--

사랑으로 함께, CGNTV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비와 기술의 부재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CGNTV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작은 교회에 CGNTV가 찾아갑니다.



신청자격

-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 (담임 교역자 직접 신청)
- 등록교인 100인 이하 (등록교인 50인 이하 또는 연 결산액 5천만 원 이하의 교회를 우선 지원)
-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필요가 있고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교회

신청방법

-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 안내 배너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각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기타 경로를 통해 전달된 링크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접수기간

2020년 4월 3일(금)~4월 13일(월)

문의

02-792-0691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GNTV 공식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네이버에서 **NAVER CGNTV** 검색